





**<표-3> 차종별 생산 추이와 전망**

(천 대, 억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f)
승용차	334	276	321	247	264
상용차	325	258	242	186	204
경상용차	292	221	206	159	174
트럭	32	36	34	26	29
버스	1.4	1.4	1.9	1.4	1.5
총생산 (완성차)	660	534	563	433	468
총생산 (금액)	160	161	163	125	153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Automotive News Europe

- 판매량을 기준으로 승용차는 200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며 2009년에는 2007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22.5만대를 기록하였음. 상용차는 감소폭이 더욱 커서 2009년에 전년 대비 33.5% 감소한 12.9만대를 기록함.

**<표-4> 차종별 판매 추이와 전망**

(천 대, 억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f)
승용차	482	435	295	225	271
상용차	234	244	194	129	142
경상용차	200	204	159	110	119
트럭	33	38	33	17.5	21
버스	1.2	1.3	1.5	1.4	1.5
총판매 (완성차)	716	679	489	354	413
총판매 (금액)	164	162	125	97	116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Automotive News Europe

- 수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 28만대로 전년 대비 59.6%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신차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2.9% 감소한 22만대를 기록함.

<표-5> 수출·수입 추이 및 전망

(천 대, 억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f)
수출(완성차)	180	178	284	219	229
수출(금액)	32	32	51	40	49
수입(완성차)	239	276	225	163	172
수입(금액)	53	61	50	38	48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Automotive News Europe

□ 2010년 들어 수출, 내수판매 증가 등 회복세

- 2010년에는 1분기에 내수판매가 모든 차종에서 전년동기보다 증가하는 등 남아공 자동차산업이은 세계 경기침체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전반적인 경기회복, 금리 인하<sup>3)</sup>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자동차산업의 회복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 판매량이 3월 중 3.8만대로서 전년보다 15% 증가하는 등 1분기 판매량이 전년보다 14.4% 증가한 10.7만대를 기록하였음. 수출도 3월 중 2.1만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8.9% 증가하며 자동차산업의 회복세를 주도함.

<표-6> 내수판매 비교(2009~10년 1분기)

(대)

기 간	2009	2010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3월	33,300	38,293	15.0%
2월	29,518	34,286	16.2%
1월	30,467	34,109	12.0%
총 계	93,285	106,688	14.4%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3) 2008년 12월 15.3%에 달하던 평균 대출이자율은 2009년 12월 10.5% 수준으로 인하됨.

<표-7> 차종별 판매 비교(2010년 1분기)

(%)

구분	2009년 4분기(전분기) 대비	2009년 1분기(전년동기) 대비
승용차	22.2	21.4
경상용차	15.7	11.4
중형 상용차	5.2	-16.4
대형차, 버스 등	22.0	9.8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

### 3. 주요 진출기업 현황

#### □ 도요타(Toyota)

- 1961년에 남아공에 진출하여 현재 연간 33만대의 생산능력과 종업원 7,300명을 보유한 도요타(Toyota South Africa)는 생산·판매 기준 남아공 시장점유율 1위의 자동차 제조사임.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도요타 본사가 Toyota South Africa 지분의 74.9%를 보유하고 있음.
- Toyota South Africa는 두르반(Durban) 공장에서 생산된 15만대 중 절반인 7.5만대는 수출하는 등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9년 2월 코롤라(Corolla), 아우리스(Auris), 베르소(Verso) 등 주요 차종의 차량결함에 따른 리콜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내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9.5% 증가하였음.

#### □ 폭스바겐(Volkswagen)

- 1946년 남아공에 진출하여 5,0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폭스바겐(Volkswagen South Africa: VWSA)은 주요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의 하나임. VWSA는 아시아와 유럽에 주로 수출하는 브랜드인 폴로(Polo)를 비롯하여, 제타(Jetta), 뉴비틀(New Beetle), 샤란(Sharan), 캐디(Caddy), 파사트(Passat) 등 주요 차종을 생산하고 있음. 내수판매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0년 3월에 16.9%로 2위를 기록함.

- VWSA는 엘리자베스항(Elizabeth Port) 근처의 유텐헤이그(Uitenhage)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2,450만 달러 규모의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부품공장이 완성(2010년 하반기 예정)되면 연간 2.2억 달러의 추가 매출액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으로 1986년에 철수하였다가 1997년에 남아공에 재진출한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South Africa: GMSA)는 현재 3,4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용차에서부터 이수즈(Isuzu) 등 경상용차에 이르는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음. 연간 생산능력은 약 20만대에 달함.
- 2009년 중 GM의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MSA는 GM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 사업부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오펔(Opel), 시보레(Chevrolet), 이수즈(Isuzu), 카딜락(Cadillac)의 4개 브랜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 전세계로 매년 약 2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음.

#### □ 포드(Ford)

- 1994년에 남아공에 진출한 포드(Ford Motor Company of South Africa: FMCSA)는 종업원 4,400명으로, 포드 본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프리토리아(Pretoria) 공장, 실버튼(Silverton) 공장, 엘리자베스항(Elizabeth Port)에 위치한 부품공장 등을 운영 중임.
- 2008년 1월 FMCSA에 대한 2억 달러 규모의 추가증자 결정, 2009년 10월 가우텡(Gauteng)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시조건에 따른 실버튼(Silverton) 공장 내 T6 브랜드 생산라인 추가 등 포드는 남아공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4. 전망

### □ 세계경제 혼풍, 월드컵 개최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 전망

- 2007년 5.5%에서 2008년 3.7%로 둔화된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확대되며 -1.8%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기조에 따른 국내외 수요의 증가, 월드컵 개최<sup>4)</sup>에 따른 관광산업의 회복 등으로 남아공 경제는 2.8% 성장할 전망이다.
- 남아공을 포함한 세계경기의 회복,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정비에 따른 시설투자의 확대,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대출확대 등에 힘입어 남아공의 자동차산업은 2010년 1분기부터 이어진 생산, 수출, 내수의 점진적 회복세를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남아공자동차제조사협회는 2010년 생산은 전년 대비 8%, 내수판매는 16.7%, 수출은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3,4,5 참조>

### □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APDP)으로 고용확대 및 경쟁 활성화 전망

- 2008년 9월, 남아공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새로운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인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APDP)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013년에 완료될 예정인 현재의 자동차산업개발프로그램(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 MIDP)의 후속 계획임.
  - 현재 약 50만대인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120만대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APDP는 연간 5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제조사에게 부품 수입의 20%까지 무관세 수입 허용, 인력·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sup>5)</sup>, 수입차에 단계적으로 인하된 25%의 관세율 적용<sup>6)</sup>, 투자금

4) 월드컵개최로 남아공 정부는 약 50만 명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는 등 관련 관광 및 서비스산업의 회복으로 GDP가 0.5~1.0%p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5) 2009년 2월, 재무부는 APDP 시행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8.7억 란드(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차산업에 배정함.

6) 2009년 28% 수준에서 매년 1%p 인하하여 2012년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액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APDP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되었던 시설투자를 재개하였으며, 이는 고용확대와 제조사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시설,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2010년 남아공 주요 제조사들의 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46억 란드(약 5.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폭스바겐<sup>8)</sup>, BMW, 포드<sup>9)</sup> 등은 2010~13년간 총 90억 란드(약 10.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표-8>                    자동차 제조사 투자 추이 및 전망**

(백만 란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f)
시설투자 등	5,058	2,459	2,808	2,216	4,068
토지·건물	758	382	329	179	381
보조 인프라 (R&D, IT 등)	399	254	153	74	176
총계	6,215 <sup>10)</sup>	3,096	3,290	2,469	4,624

자료: 남아공자동차제조자협회(NAAMSA)

조사역 반형섭 (☎ 02-3779-6665)  
E-mail: [hsbhan@koreaexim.go.kr](mailto:hsbhan@koreaexim.go.kr)

7) South Africa Rand貨로 2009년말 기준 US\$1=8.4 Rand 수준임.

8) 2009.10월 폭스바겐은 생산량을 50%, 수출량을 100% 증가시키는 35억 란드(약 4.2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9) 로슬린 공장(Rossllyn Plant)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20억 란드(약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10) 2006년 투자금액의 급증은 대량의 일시적인 OEM 주문에 기인함.